

'4·3망언' 태영호 평통 사무처장 임명 반발 심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 24일 기자회견 태 전 의원 사무처장 임명 반대 자문위원 사직서 제출 임기 1년 남기고 6명 사직... "분열 조장 인사 임명 안돼"

제주4·3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취임할 것을 두고 제주 정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 자문위원(지역대표)을 맡고 있는 제주도의원 일부는 사직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의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명에 따라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한다. 민주평통은 권역별 지역회의를 두고 있는데, 제주지역회의 자문위원은 모두 269명이다. 이들 중에 43명은 지방의원이 당선직을 맡는 '지역대표'이며, 나머지 226명은 도지사, 행정시

장, 정당 등의 추천을 받는 '직능대표'다.

현재 자문위원 임기는 내년 8월 까지로 1년 넘게 남아 있지만 일부 자문위원은 '항의 표시'로 직을 내려놓고 있다. 태영호 전 의원의 사무처장 임명에 반발하면서, 제주도의의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6명이 24일 자문위원 사퇴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성의, 송창권, 양영식, 하성용 제주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 전 의원은 제주4·3을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 촉발했다고 주장하며 4·3을 왜곡하고 폄하했다"며 사무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민주와 평화적 통일에 적합한 인물

이 말아야 한다"며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의 사무처장직 인선에 대해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자문위원직을 사직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같은 당 소속 김경미, 현길호 의원도 사직서 제출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지역대표를 맡고 있는 도의원 43명 중 6명이지만, 도의회 내부에선 또 다른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다른 의원들도 뜻을 같이 하는가"라는 질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도 다른 방향으로 (사무처장 임명 항의) 의사를 표현하겠다고 한다"면서 "어제(2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도당은 태 전 의원의 사무처장 취임 당일에 성명을 내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할 민주평통 사무처장 자리에 국민 간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인사가 웬 말인가"라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임명을 철회하고 태 전 의원은 스스로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 전 의원은 제주4·3에 대해 이른바 '지령설'을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당시 "제주4·3이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 일어난 무장폭동"이라고 주장해 도내 4·3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태 전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 당시 구로구유에 출마했지만 결국 낙선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택시 연석 충돌... 승객 등 3명 중상

제주도내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택시가 연석 등을 들이받으며 운전자를 비롯한 3명이 크게 다쳤다.

24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낮 12시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택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 A씨와 20

대 관광객 2명 등 3명이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최근 3년간 PM 교통사고 112건 발생

1명 사망·116명 부상... 사고 매년 증가 추세 안전모 착용 필수·2인 이상 승차는 절대 금지

제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100건이 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로교통안전공단 제주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112건의 PM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6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건(부상 31명), 2022년 40건(부상 43명), 2023년 41건(사망 1명·부상 42명)이다.

PM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일 광주에서는 말년휴가를 나온 20대 장병이 휴가 도중 PM을 몰다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3월 광주시에서는 20대 대학생이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PM을 타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이틀만에 사망했다.

공단은 "PM은 단거리 통행시 짧은 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증

가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 또는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PM은 두 명 이상 탑승시 균형 잡기가 어려워 사고 시 두부 손상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한 명만 타야 한다"며 "안전한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 최근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PM은 '자동차 등'에 해당돼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또는 '2종 소형', '1·2종 보통', '1종 대형·특수'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이용 가능하다. 또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승차를 해서는 안되며, 주행 시에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대병원 상임감사 공모 오는 8월 5일까지 원서 접수

제주대학교병원이 상임감사를 공개 모집한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조미영 현 상임감사의 임기가 이달 만료됨에 따라 후임자를 찾기 위해 오는 8월 5일까지 임용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대병원 상임감사는 병원 재산 상황과 회계 및 업무, 정관 규정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감사하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간이다

지원 희망자는 원서와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서를 제주대병원 기획예산과로 제출해야 한다.

제주대병원은 공모 마감 후 이사회를 열어 임용 후보자로 2명 이상을 교육부에 추천하며, 교육부는 이 중 1명을 상임감사로 임명하게 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



물바다로 변한 도로 24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차량들이 물웅덩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고 있다. 이상민기자

노형동 아파트서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8분

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지하 펌프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

해 20여 분만인 오후 4시11분쯤 완전히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과열로 인해 연기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윈터프린스

탐나는봉

사라향

아례조성

포트모

화분모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도묘, 일반묘)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성 / 미래향 / 제라온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도묘, 일반묘)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궁천조성 / 유라조성 / 카라향 / 레몬

가정원에 조성수 2~7년생(포도묘, 화분묘, 일반묘)
하귤 / 팥삭 / 세미늘 / 금귤 / 당유자 / 머틀립오렌지

◆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 감귤 무병묘 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생산, 모수포 보유)
◆ 보정사업 묘목공급 지정업체 (원지정비의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도묘, 화분묘 분양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행사판매 가능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농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로 991번길1(수산리735)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쿨고리

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 = 쿨고리 작업세트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 054-652-3725 |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